

농협재단 장학생 397명에 장학증서 수여식

농협재단은 '2017년 농협재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올해 선발된 장학생 39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농고생 197명과 농대생 41명, 일반대생 159명이다.

농협재단은 2008년부터 매년 농업인 자녀 가운데 국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해 매 학기 최대 300만원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 자리를 찾고 머물 수 있도록 졸업 후 영농 의지가 있는 농고·농대생을 대상으로 '미래 농촌 정주(定住) 장학생'도 새로 선발했다. 농고학생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농대생에게는 학기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실제 납입 등록금 전액을



김병원(오른쪽) 농협재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17년 미래 농촌정주 및 인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미래 농촌정주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농협재단 제공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김병원 농협재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많은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NH, 미래농촌 인재에 장학증서 김병원 농협재단 이사장(가운데)과 장학생들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17 미래 농촌정주 및 인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재단은 이번 수여식에서 농업고등학교생 197명, 농업대학생 41명, 일반대생 159명 등 총 39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미래농촌 학생 397명에 장학증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농협재단 이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미래 농촌정주 및 인재육성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주고 기념촬영을 했다. 농협재단은 이날 농고생 197명, 농대생 41명, 일반대생 159명 총 397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16

2017-08-18 00:03



(17)
2008

7

2017 2

16

300

매일경제

가

2017-08-17 09:51

17 '2017
159)
2008
300

, 397 (197 , 41

(定住)

100

가 197 , 41

300

28

700

2017 2

16

[]

